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9년 9월 8일(주일) 제1261호

나라와 민족 위한 계속되는 기도행진!

'마리아행전 1.2.3' 기동운동 … 하루(1), 2분씩, 3번 기도
남녀노소 누구나, 10개 캠퍼스 1,867명 기도문자 수신 중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행진은 끝나지 않는다. 지난 6월 열린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이후 여성사역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1), 2분씩, 3번 기도한다'는 의미다. 매일 아침 여성사역본부에서 보내주는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면 된다. 여성사역본부에서 보내주는 기도문을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과 공유할 수도 있다.

현재(9월 6일 기준)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에는 서빙고 495명, 양재 508명, 부천 90명, 수원 300명, 대전 60명, 남양주 120명, 평택 78명, 인천 74명, 강동 75명, 양지 32명, 타교회 35명 등 1,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사역본부에서는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달 30일(금)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누리 여성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 64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 여성 비전대회에서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월 마리아행전 기도모임'과 '주 마리아행전 기도모임' 또한 활발하다. 월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각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주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은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문의: 02-3215-366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참가자 모집

11월 6~7일 구마모토 시민회관시어즈홈유메홀·대홀

오늘(8일)부터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참가자 모집을 한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는 오는 11월 6일과 7일 일본 구마모토 시민회관시어즈홈유메홀·대홀에서 'Together 다함께'를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6일 오전 교회세미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가스펠나이트, 7일 오전 전국실행위원회 조찬회, 리더십 포럼 한일교류오찬회, 7일 저녁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집회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목회지원실에 신청서 제출하거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89만 원(접수비 20만원).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실행위원장 나가데 마키오 목사는 "하나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의: 02-749-1149

9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

캠퍼스, 공동체, 순, 부서별 헌물 모집

9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날이다. 온누리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캠퍼스, 공동체, 순, 부서별로 쌀 등의 헌물을 모집한다. 추수감사절 헌물은 서빙고 22일 오전 10시까지 본관 로비, 양재 21일 오전 9시~오후 1시 사랑홀 1층 로비, 부천 21일까지 본당, 수원 9월 16~21일 3층 본당 앞쪽, 대전 17일~20일 목회지원실, 21일 오후 2시 본당, 남양주 21일 오후 2시 본당, 평택 21일 오후 3시 목회지원실, 강동 21일 오후 3시 본당 앞, 양지 21~22일 본당, 도곡교육관은 21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숙명여자고등학교 대강당 로비에서 추수감사절 헌물을 받는다.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레위기 16:1~10(9월 10일 본문)
본문 주제: 예수 그리스도
영상제목: '세상의 빛' 하용조 목사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빛으로 들어갈 때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적용질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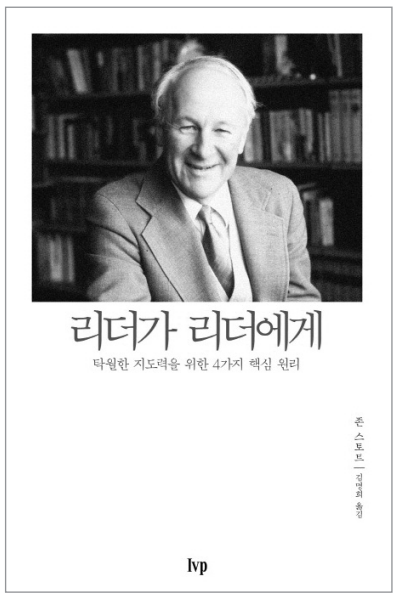
*유튜브 검색창에서 'CGNTV SOON' 검색

기획_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4–5면 절기_ 2019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6면 *다음 주 신문(9월 15일)은 추석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2

책 읽어주는 목사

크리스천 리더십의 정수(精髓)



〈리더가 리더에게〉
존 스토트 저 | IVP | 7,000원

신학생 시절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주제로 친구들과 모여 늦은 밤까지 토론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열띠게 토론했지만 돌아보면 그분의 책 내용을 이해했다기보다는 지식적 허영에 갇혀 소화되지 않은 지식의 부산물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토해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남겨주셨다. 바로 〈리더가 리더에게〉다. 솔직히 100페이지가 안 되는 이 책을 내가 손에 넣은 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 일단 분량이 적어 읽는데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서였고,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름값 때문이었다.

〈리더가 리더에게〉는 1985년 그의 설교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리더들이 사역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제들을 나열한 순서를 보면 그가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개인적 경험을 뽑으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낙심, 훈련, 관계, 권위라는 네 가지 주제는 탁상에서 발견되는 주제가 아니라 그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나아가 리더의 삶을 살면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경험한 주제였기에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네 가지 주제를 목차에서 확인한 순간 이 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생겼다. 나의 불완전한 리더십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겪었던 주제들, 지금 청년들을 섬기며 보게 되는 그들의 삶이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주옥같은 네 가지의 주제 중에 나는 오늘 낙심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내가 소유한 최고의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몽땅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랄까.

이 기막힌 책의 첫 번째 주제는 '낙심(Discouragement)'이다. 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낙심을 첫 번째 주제로 뽑았을까? 본인의 경험도 있겠지만,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낙심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낙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문제로 인한 낙심과 사역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낙심이다. 자기 자신, 사역, 그리고 리더라는 위치가 가지는 외로움, 또 마귀의 공격으로 오는 압박이 없는 리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말한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의 빛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결국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겉 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지름길이며,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는 리더의 자질이 나에게 없는 안타까움에 울었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보여주는 리더의 본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와 울었다. 나는 이 책을 접한 이후 요셉공동체 리더들에게 선물을 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리더가 리더에게〉를 통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감동을 만날 수 있고, 크리스천 리더십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길탁 목사
(요셉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성경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답: "성경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나이, 직업, 사는 곳, 살던 시대 등 모든 것이 달랐던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전도현장에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한 후(〈날마다 111전도〉 참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경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은 실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불경은 믿지요? 그래요 불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지요. 불경은 석가모니께서 약 2,600년 전에 자신의 깨달음을 설법한 내용을 후에 제자들이 글로 편찬한 것입니다. 가상의 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지요. 성경 역시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데,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 탄생 전(주전, 기원전)을 의미하는 말이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로 주님의 해(주후, 기원후, 서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시대)를 나누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His Story를 합친 말로 그의 역사 즉 예수님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성경은 가상이 아닌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후 성경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런데 성경은 일반 책들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되었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었으며(미 5:2, 마 2:6), 동정녀인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사 7:14, 마 1:23), 또 이름까지 임마누엘(사 7:14, 마 1:23)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언되었습니다(마 1:21, 마 1:25).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은 30냥에 팔리고(슥 11:12, 마 26:15), 나무 십자가에 달리며(민 21:8~9, 요 3:14, 요 19:18), 십자가상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시 69:21, 마 27:34),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으며(출 12:46, 시 34:20, 요 19:33, 36),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고 예언되었습니다(시 16:10, 호 6:2, 막 16:6, 눅 24:6, 고전 15:4).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에 대한 이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쓰였으며 성경의 필자가 약 40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저자의 직업도 신학자뿐만 아니라 왕, 국무총리, 군대장관, 의사, 세리, 목동, 어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쓰인 장소도 이스라엘 땅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 세 대륙에 걸쳐서 쓰였고,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 여러 언어로 쓰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66권 개별 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필자에 의해 장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게 쓰였으며 66권 개별 책들로 이루어졌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의 맥을 이루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참고, 하나님이 죄악 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참된 회개(2)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 16:24~25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노력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죄인 된 인간들에게 회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죄인 된 인간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요, 참된 회개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이들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24~25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네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네 자신을 수용하고 충족시키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네 자신을 개발시켜라"고 말합니다. 쾌락주의는 "네 자신을 즐기라", 금욕주의는 "네 자신을 억제하라", 인본주의는 "네 자신을 신뢰하라. 네 자신 안에 무엇이 있든지 자신을 자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더 세련되게 혹은 더 멋지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된 인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같은 문장에 나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뒤의 단어가 앞 단어를 설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악의 뿌리, 하나님에 대한 반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억울함과 고통,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자기 부인이요,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자아를 죽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과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위기는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든 죄의 뿌리에는 악이 있고, 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고,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아의 순종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요, 그 악으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항복하는 경험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익숙해진 자기만족, 자기 의, 자기 의지, 자아에 만족되어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반역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의 중심 '십자가'

그런데 문제는 항복할 것이 많고, 항복해야만 하는 악한 인간 안에 항복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악할수록 더 회개해야 하는데, 악한 사람일수록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가져다주는 악함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해서가 아닙니다. 악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회개할까봐. 회개하면 자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는 자리에 안 갑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임하실까봐. 우리의 악함은 교묘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결정과 판단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 자아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넣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본질과 다른 것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설명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지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옛 사람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나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죄에 대한 옛 사람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인간의 옛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간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인류를 다시 살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옛 사람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날마다 삶 속에서 참된 회개를 이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자아의 죽음' 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옛 사람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4

기획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모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가정위탁제도 …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에 큰 역할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

가정위탁제도. 친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사망, 혼외출생, 수감)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원조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쉽게 말해, 여러 사유로 인해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자료(2017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위탁아동은 총 11,983명으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 7,950명(66.3%)으로 월등히 많고, 친인척위탁 3,100명(25.9%), 일반가정위탁 933명(7.8%) 순이다. 시설이 아니라 가정위탁제도가 왜 필요하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왜 가정위탁제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은 하나님께 입양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동물들의 각인(출생 이후 처음 시야에 들어온 어미나 다른 움직이는 존재에 지속적인 애착을 보이는 현상)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왜냐하면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관계는 한 사람이 평생 맺는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학문(이론)으로 체계화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소아과 의사 볼비(Bowlby)다.

이론과 실험,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된 아기들의 정서적 애착의 필요성과 중요성

볼비는 유아 초기의 애착형성이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애착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기의 여러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로의 빨간털원숭이 실험은 볼비의 애착이론을 뒷받침해준다. 위스콘신대학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빨간털원숭이를 대상으로 애착형성 실험을 했다. 새끼원숭이를 어미와 격리시키고,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인형)와 함께 있게 했다. 하나는 차갑고 딱딱한 모형 철망에 우유병을 걸어놓았고, 다른 하나는 철망에 부드러운 벨벳천으로 싸놓은 대신 젖병은 연결하지 않았다. 새끼원숭이는 두 어미 중에서 누구에게 갔을까? 놀랍게도 새끼원숭이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가 아니라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지만 부드러운 촉감이 있는 벨벳천으로 덧댄 원숭이에게 붙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배고픔보다 따뜻함을 선택한 것이다. 실험을 통해 할로는 아기의 정서적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아기들의 정서적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적 사실로도 증명됐다. 1989년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몰락하고 드러난 고아원 실상이 이를 보여준다. 차우셰스쿠는 1980년대 루마니아를 지배했던 악명 높은 독재자다. 그는 매우 비인간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내세

웠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군사력도 강해져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차우셰스쿠는 가정 당 무조건 네 명 이상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자녀할당제'를 시행했다. 문제는 독재와 폭정으로 루마니아 경제가 가난해진 것이다. 빈곤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아이를 도저히 양육할 수 없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결국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고, 고아원이 고아들로 가득 찼다. 독재정권이 무너진 이후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열악했던 루마니아 고아원의 실상이 서방 언론에 알려지며 '가정위탁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루마니아 고아원의 비극에 대해 게오르게트 뮬헤어(NGO 활동가)는 TED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차우셰스쿠의 전시용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원이 많이 시끄러울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만큼 조용했습니다. 침대마다 아이들이 누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우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곳의 수간호사가 제게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의 바르답니다.' 그곳의 아기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시간은 하루 중 고작 몇 분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고아원의 아이들이 자라서 보육원을 떠날 때 사회부적응자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도바에서는 보육원의 여자아이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인신매매를 당할 확률이 10배 높고, 러시아에서는 보육원을 떠나고 2년 뒤 20%의 아이들이 범죄 경력을 갖게 되며, 14%는 성매매에 연루되고, 10%는 자살한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족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가족을 가져야 하며, 가족을 필요로 합니다. 보육원이나 고아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가정위탁제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뿌리 뽑을 수 있는 아동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가정위탁은 꽃에 물을 주는 것… 사랑과 관심이 그 아이들을 살린다!

아기의 정서적 애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과 실험, 역사적 사실이 타당한 주장일까? 실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오충화 집사(서대문공동체)네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아내 최진옥 집사 덕에 아들 둘(현준 18세, 현민 16세), 딸 둘(현아 13세, 현주 9세)을 둔 다복한 가정이다. 오 집사네는 아이들을 위탁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아내 최 집사가 수년 전부터 남편 오 집사에게 아이를 위탁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다. 오 집사는 아내의 결정을 두 가지 이유로 걱정했다. 하나는 위탁받은 아이가 입양이 결정돼 다른 가정으로 갈 경우 아이에게 생길 분리불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쁘게 잘 키우던 아이를 보내고 남겨질 상실감이었다. 그런데 어쩌랴. 아내의 뜻이 너무 확고했다. 결국 지난해 소정의 위탁교육을 받고 첫 번째 아이를 위탁받았다. 지난해 12월 10일 예꿈(가명, 남아)이가 오 집사네 집에 왔다.

"예꿈이가 너무 예뻐서 소리 지르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게 우리가 그렇게 애정표현을 해도 아이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영혼 없는 인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울지도 않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아이가 밤새 한 번도 안 깨는 거예요. 시설에서는 너무나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오 집사 가족들은 반응 없는 예꿈이에게 온갖 애정을 쏟았다. 뽀뽀도 계속 하고, 예뻐하고, 눈을 마주치고, 끊임없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그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예꿈이가 가족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웃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가 밤에 잠투정을 했다. 한밤중에 요란한 울음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잠을 못자서 힘들었지만 너무나 기뻤다. 왜냐하면 그게 아기의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정말 기뻤어요. 예꿈이가 한 달 만에 꽃피기 시작했어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아이가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우리 몸은 피곤했지만요(웃음)."

예꿈이의 입양처가 정해졌다. 위탁양육한지 꼭 두 달째 됐을 때다. 오 집사 가족은 기쁨과 눈물로 예꿈이를 양부모에게 보냈다. 아이를 보낸 날 첫째 현준이가 그러더란다.

"아빠, 이제 (위탁) 그만하면 안 돼요?"

사실 예꿈이를 키우면서 첫째의 변화가 두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5

드러졌다. '사춘기여서 방밖으로 나오지도 않던 아들이었다. 시큰둥해 하던 큰아들이 예꿈이를 보기 위해 안방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예꿈이를 키우면서 얻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였다. 그만큼 현준이의 상실감이 컸던 모양이다. 오 집사가 그런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도 들지만 그 아이는 인생이 바뀌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니?"

예꿈이를 보낸 지 2주 후, 입양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음 아이를 언제 맡을 거냐고. 오 집사는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가족여행이 끝나고 맡겠다고 했다. 그러자 기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들이 다만 며칠이라도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시설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가정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여행 가실 때는 우리가 볼 테니까 그 전까지라도 맡아주실 수 없을까요?"

결국 예꿈이를 보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예진(가명, 여아)이를 받게 되었다.

"예꿈이를 보내고 뻥 뚫린 마음이 예진이로 인해 완전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 집사네는 요즘 예진이의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담느라 바쁘다. 예진이가 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되기까지 약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예진이의 커가는 모습을 못 볼 양부모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가정위탁은 마치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 아이는 살아나요.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아이들의 중보자, 보호자, 양육자, 멘토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에게 물을 주고 꽃을 피우도록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젊은 부부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위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서 자녀들의 품이 커지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가정위탁은 입양과 다르다 크리스천들의 또 하나의 사명

가정위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25세 이상 부부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인 가정, 성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으로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위탁부모가 될 수 있다.

가정위탁과 입양은 다르다. 입양은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는 것이고, 가정위탁은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위탁부모에게 이전해 동거인 자격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의 유익은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아이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며,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 및 성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위탁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크리스천이라면 앞장서 가정위탁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 22:22~23).

제이홈(온누리교회 입양 커뮤니티) 오창화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난이 친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고 교회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대한사회복지회 02-552-7739

입양부모를 만나기 전에도 엄마가 필요하다

김수진 부장
(대한사회복지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두말 할 필요 없는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면 바꿔 말해보겠다. 엄마는 아이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른이 된 여자들이 모두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모든 여자들이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엄마가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다. 나는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이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엄마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간절히 외치고 싶다.

이 세상에 엄마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 말은 생물학적인 인간 탄생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문화적 혹은 제도적 관점의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엄마가 아이를 키웠다거나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관점의 엄마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상에는 자신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아닌 사람의 손에 성장한 아이들도 있다.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보육사들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자로서의 엄마가 아무리 사랑과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본다고 한들, 우리네 엄마와 같을 수 있을까? 같을 수 없다면 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알면서도 설명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평소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입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성장하는 동안 아빠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은 했지만, 엄마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미디어를 통해 고아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도 그런 일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나 또한 엄마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엄마는 자본도 학력도 인맥도 없고, 경제관념이나 장사 수완 등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었다. 여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얼마나 큰 희생이 숨겨져 있는지 당시 나는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엄마의 존재에 대해, 엄마의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 하고, 엄마라는 존재는 당연히 자신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덧입히면서 역할을 강요한다.

최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매우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보육사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인 동시에 근로자이다. 1주일 168시간 중에서 52시간 이내에서만 엄마 역할을 하면 된다고 법이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우리나라가 노동환경의 측면에서도 경제수준과 걸맞는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보육시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3명 이상의 엄마들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날마다 3번 정도의 교대근무로 인해 엄마가 바뀌는 이 제도가 과연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만큼 가정을 대신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시스템과 엄마를 대신하는 직업으로서 보육사의 역할을 발전시키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3~4명의 엄마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엄마는 한 명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편인 나의 절대적 지지자이며,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존재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엄마'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일

이쯤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눈치 챘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엄마의 품을 벗어난 즉,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부모(대부분 미혼모)들이 키울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입양을 결정해서 인도된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진행하며 보호받고 있다. 부모가 없는 상태인 아이들에게 온전한 부모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입양부모를 만나기 전에도 엄마가 필요하다. 우리 기관의 아이들에게는 그 단 한 명의 엄마가 출생까지는 친생모였고, 기관에 온 후에는 위탁모이며, 입양된 후에는 양부모가 되는 셈이다. 입양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수일, 수개월, 수년의 시간 동안 위탁모들이 대리양육자로서 아이에게 엄마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기관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당분간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전망은 밝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관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위탁모들에게 지불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대가라고 말할 수 없다. 엄마의 역할에 대한 가치매김을 돈으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엄마의 필요를 채워줄 새로운 위탁모가 너무 절실하다.

어른이 된 여자들이 모두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모든 여자들이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위탁과 입양을 통해 양육의 몫이 더욱 커진 엄마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엄마'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다. 달란트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한다. 더 많은 성도들에게 이 현실을 전파해주기를, 행동해주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6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추 · 석 · 감 · 사 · 예 · 배

가정 예배 지침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날 구원 하신 주 감사(경배와 찬양 67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시편 118:28~29	가족 중에서
설교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경배와 찬양 160장)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

누군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대체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주셔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물 그 자체에 대한 만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작은 감사의 내용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 자체가 시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러한 마음은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위기와 시련이라는 구체적인 사실들에만 매달려 괴로워하기보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형통함보다 행복한 것이며, 주님 앞에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주님의 등 뒤에서 웃는 것보다는 훨씬 희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주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나가는 말

오늘 추석 명절,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잘했다면 좋지만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한평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OOO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45:1~4	다같이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찬 435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마태복음 16:25~28	가족 중에서
설교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설교자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찬 380장)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들어가는 말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지 OO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지나간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25-26절).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의 목숨이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밝히셨지만(26절),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잃으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5절, 막 8:35).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 목숨이야말로 오직 주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에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목숨이 소중하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27절).

곧이어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은 베들레헴의 구유, 비천함 가운데 오셨지만 그의 다시 오심은 전능하신 심판주로 영광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다시 오심이 결코 막연한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비롭게도 이 미래는 벌써 현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요 3:18).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아직 미약할지라도 주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광이 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28절).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주의 다시 오심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나친 과장법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는 단지 물리적인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있지만 그 실상은 성도의 믿음 안에서 이미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모두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의 행복과 기쁨은 밥을 먹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 짓는 냄새가 문 앞까지 흘러가는 순간에도 시작된 것이며, 동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얘들아! 들어와 밥 먹자"라는 어머니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그 행복과 안식은 시작된 것입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생활을 실천하는 작은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세상의 마지막이 벌써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의 목숨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인을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7

Love Sonata 일본 목회자들이 보낸 편지

"영혼구원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치·경제·역사적 등의 이유로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목회자들과 교계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실행위원들과 역대 러브소나타에 참석했던 일본 목회자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애절한 편지를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리키마루 츠구오 목사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실행위원회 기도위원장)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를 방문했을 당시 체감했던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열정의 기도를 떠올리며 저 또한 같은 규슈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모노세키 시온교회 재임 중에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가 이루어졌고, 그 일이 저의 전도자로서의 인생에 새로운 빛과 비전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 이후 오카야마, 오비히로, 오이타, 교토, 후쿠오카 집회에 기도의 동역자로 동참하였고, 매번 개최되는 집회를 통하여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이 기도와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며 섬기는 모습이 주는 감동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당시 한국은 세월호사건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와 주셨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약 2개월 남짓 남겨두고 한일관계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위기감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전선에 선 모세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 계획의 완성임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출 17:11).

저의 아버지는 평양 대부흥회에서 구원받고 오다 나라지 목사와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요네쿠라 시게코씨의 결혼을 중재하셨고 그 인연을 계기로 여러 번 조선 전도를 위해 해협을 건너셨습니다. 당시 일본의 오만한 행동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일본과 한국관계의 중개자가 되어야겠다는 아버지의 다짐을 간직해오던 중에 러브소나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반신 장애가 있는 저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곧잘 이 지팡이를 높이 올려 러브소나타와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전진과 일본과 한국의 부흥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주께 속하였음을 믿고 의지하며 할렐루야!

"부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시미즈 쇼조 목사
(러브소나타 오사카 실행위원장)

주안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안부인사 드립니다.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러브소나타와 CGNTV를 통한 지속적인 선교사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6~7일 30번째 러브소나타 구마모토가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사카에서도 2007년 5월과 2016년 11월에 러브소나타를 개최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 모든 집회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풍성한 축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 교회 목사들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의 러브소나타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온누리교회 강사님들이 오셔서 전도세미나와 QT세미나를 해주셨고, 9월에는 러브소타나 오사카 실행위원회 소속 5명의 목사가 서울 온누리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예배세미나, 가을에는 QT세미나와 가족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는 목회자 7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CGNTV에 약간의 헌금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CGNTV 후원회관서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긴장감을 안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일본 교회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순조롭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일본을 향한 구원의 열심이 일본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디 일본인의 구원과 일본 교회를 위해서, 일본 교회의 목사들이 더욱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에서도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가데 마키오 목사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실행위원장)

10년 전 故 하용조 목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본을 나도 사랑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 러브소나타입니다. 러브소나타는 하용조 목사 사후 이재훈 목사가 뒤를 잇게 되었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일본이 한국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본을 용서하고 품어 주셨습니다. 또한 러브소나타를 통하여 주 안에서 멋진 교제를 10년 넘는 시간동안 지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한국의 국민들에게 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의 선교를 짊어질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마모토는 3년 전 큰 지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온 관심은 구마모토의 복구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는 각각의 교회사역이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고 뜻을 함께 한 목사들이 구마모토 복구는 물론이며, 크리스천의 가장 큰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구마모토 사람들의 '영적부흥'을 위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구마모토 선교네트워크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2018년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개최 소식을 접하고,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구마모토의 영적부흥을 위해서는 구마모토에서도 러브소나타 개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네트워크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러브소나타 개최의 뜻을 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쿠오카에 러브소나타 일본 책임자이신 김경훈 목사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온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저희 쪽의 뜻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의 생각을 글로 적어 온누리교회에 보내달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글을 작성하여 온누리교회에 보내었고, 곧이어 온누리교회는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개최의 뜻을 받아준다는 답신과 함께 2018년 4월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실행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Together 다함께'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의 주제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0~11).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과 일본이 주 안에서 함께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Together 다함께'에는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 함께라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관계에 있어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마모토는 30번째 러브소나타입니다. 부디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구마모토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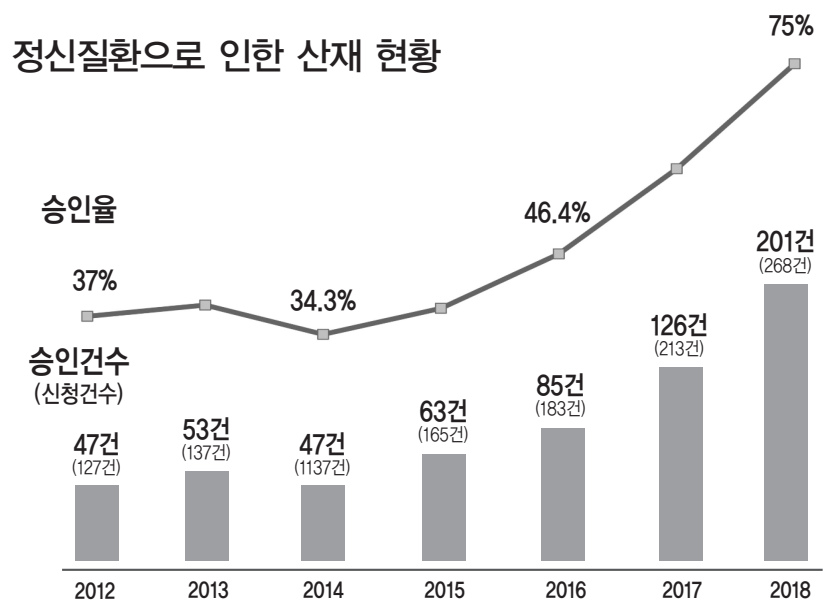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문화 1. 직장생활

교회 문화로 직장생활을 바꾸자!

중보기도, 마니또 게임, 멘토와 멘티

오래전에 "나 오늘 쉴래! 왜!! 피곤하니까!!!"라는 광고멘트가 유행한 적이 있다. 그만큼 직장생활은 누구에게나 고되고, 피하고 싶고, 편했으면 좋겠지만 꿈같은 바람일 뿐이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장생활이 단순히 고된 정도를 넘어 죽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산재를 신청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오죽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을까? 아담의 범죄 이후 일터가 천국 같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일터가 지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직장)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떡하면 좋을까? 크리스천들이 섬기고, 나누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문화로 직장생활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 실제적인 적용방법 몇 가지를 제안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실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이 2017년과 2018년 사이 무려 60%나 증가했다. 그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다. 적응장애 53건, 우울증 72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6건, 급성 스트레스 장애 15건, 불안장애 5건 등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H형제(30세)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간수치가 급격히 높아졌다.

"직장 상사에게 업무 시간 이후 잦은 연락이 와서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더니 '예의가 없다', '주인의식이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렇게 몇 차례 시달리다 보니까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간수치가 수직 상승했어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H자매(28세, 비신자)는 직장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인과 직장 동료 모두가 스트레스 요인이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우거나 휴직을 하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고 있어요. 민원인들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데 직장 동료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제풀에 지치기만 하고요."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크리스천이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교회사역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고민할 때면 넌크리스천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Y형제(32살)는 여름사역 시즌만 되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여름사역은 꼭 참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책잡힐 일을 안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일터가 선교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좀처럼 마음이 안 가요. 직장이 교회공동체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 우리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직장인들이라면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내일 우리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망상을 해봤을지 모른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출근은 싫은 일이다. 모든 직장인이 다 똑같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 수준을 뛰어 넘는 경우다. 직장이 무섭게 느껴지거나 직장동료가 혐오 대상이 되어 있다면 심각하다.

직장인들이 출근이 두려운 대표적인 이유는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상사 및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겨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1달 동안 무려 1,844건의 괴롭힘이 제보됐다고 한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살얼음판이라 할 수 있다. 갑(상사)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이른바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로 변경해 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한다. 가해자는 사내징계를 받는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갑도 할 말은 있다. 이른바 '을질'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이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처가 곤란해졌다. 업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데 부하 직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고과평가 뿐이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과 을질이 두려운 갑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직장생활이 법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더 적절한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해답을 기독교적 관점과 교회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즐거운 직장생활 위한 세 가지 제안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은 일(직장)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 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 일에 대한 해석'이라고 지칭하고 싶다.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일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일과 신앙, 일과 교회가 괴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일터에 교회 문화를 심는 것이다. 일터에 심을 수 있는 교회 문화가 꽤 많다. 그 중에서 중보기도, 마니또 게임(상대가 모르게 돕고 편지를 보내는 놀이), 멘토와 멘티를 제안한다.

교회공동체에서는 수시로 지체들의 기도제목을 공유하며 중보기도를 한다. 직장생활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동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면 그 일이 잘못되어서 나보다 뒤쳐지기를 바라기 보다는 엄청난 성공을 기도해주자. 직장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해보자. 회사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샘솟는 건 당연하다. 더불어 그 직장에 중보기도의 바람이 불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는 마니또 게임도 직장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교회에 처음 온 지체가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구성원들과 친해지는 데 마니또 게임만한 게 없다. 직장에서 여럿이 함께 마니또 게임을 할 수 없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매주 직장 동료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마니또가 되어 보자.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틀림없이 꽃향기가 날 것이다.

멘토와 멘티 제도도 직장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는 말이 있다. 매정한 말 같지만 직장생활 깨나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이다. 멘토들이다. 순장이나 리더십들이 멘티 옆에 딱 붙어서 그들이 잘 적응하고 이해할 때까지 도와주곤 한다. 바로 이 멘토와 멘티 제도를 직장생활에 도입하면 좋겠다. 끝까지 누구하나 포기하지 않으니 당연히 낙오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도 없다. 무엇보다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크리스천으로서 더 나은 직장생활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면 일.하.세. 아카데미에 참석해 보는 것도 좋다.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스쿨이다.

일.하.세. 아카데미
서빙고: 10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문의: 010-3504-8394
대청: 9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양재)
문의: 02-3215-3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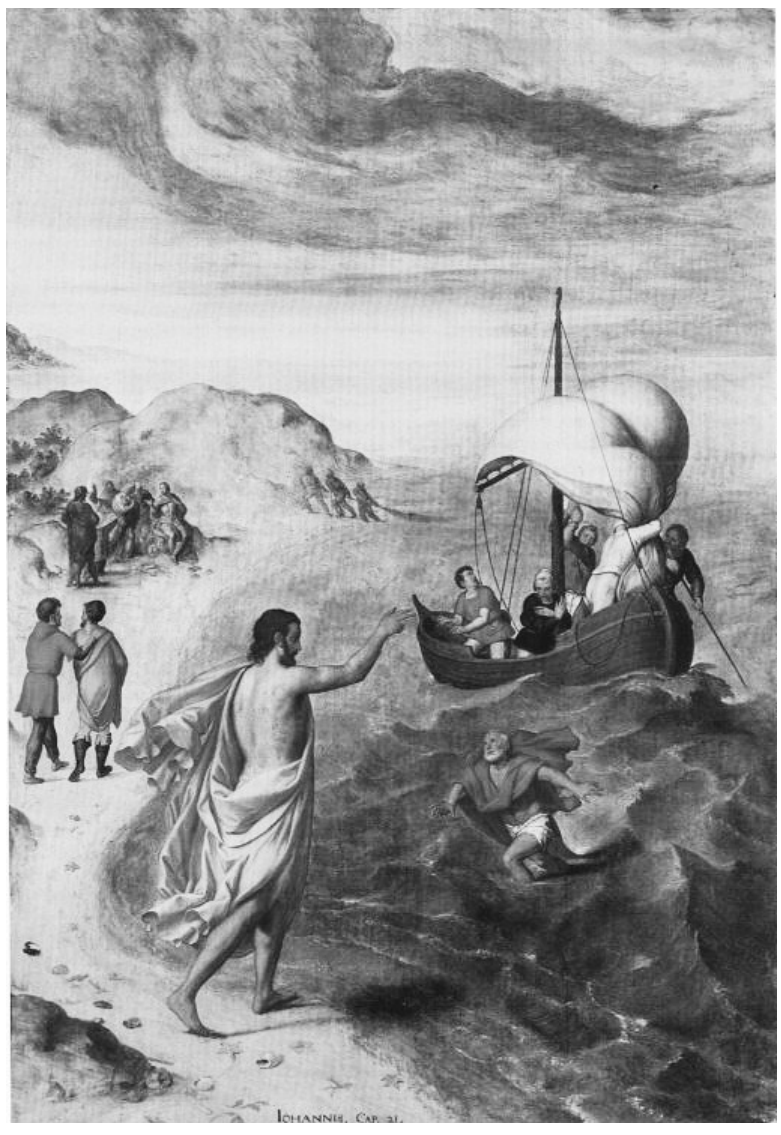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9

명화로 읽는 성경 바다에서의 베드로의 변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심리학연구소장)

어떤 평범한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그의 탁월한 제자가 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관대하고, 역동적이며, 대범하고 변덕스러우면서도, 매우 인간적인 모습의 베드로. 미술사학자 스테파노 추피의 인물평을 듣노라면 베드로는 마치 원명(元明) 교체기에 나관중이 지은 소설 〈삼국지연의〉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장비를 연상시킨다. 저돌적이면서도 인간적이고 의리 있는 장비와 베드로는 닮은 구석이 많다.



피터 포르부스가 그린 '바다에서의 베드로의 변화'(1576년, 벨기에 브뤼게 크리스토포러스 예배당).

"나다!(It is I)"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다. 마태복음 14장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셨다. 그런데 배가 육지를 떠나 제법 시간이 지났을 때 난데없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다. 한밤중 돌풍에 당황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줄 알고 놀라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말한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자 덜컥 겁에 질렸고 그대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 드리며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플랑드르 르네상스 시대 화가이자 조각가인 피터 포르부스(1523~1584년)가 그린 '바다에서의 베드로의 변화'(1576년)이다. 이 그림은 벨기에 브뤼게의 어부들이 포르부스에게 요청해 그려졌다고 한다. 브뤼게 어부들이 같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동질감을 강하게 느꼈던 모양이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호수)다. 바다는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 엄청나게 크고 넓어 고대 사람들이 전체 규모를 측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형체도 없고 아득히 멀어서 시간마저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바다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바다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깊이뿐이다. 그러나 그 깊이조차 알 수 없기에 바다는 두려움과 고난의 상징이다. 사막도 냉혹하고 적대적이지만, 바다는 더욱 적대적이다. 여기에 폭풍우까지 불면 치명적이다. 베드로 일행은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각배에 몸을 맡긴 채 어쩔 줄 모른다. 포르부스의 그림을 보라. 잔뜩 부풀어 오른 돛은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곧 찢어질 것만 같다. 부러지기 직전의 돛대를 부여잡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를 잘 보여준다. 거센 파도 위에 뜬, 그것도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일엽편주(一葉片舟; 자그마한 한 척의 배)에 몸을 실은 제자들은 늘 불안정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때는 밤 사경(四更)이다. 오늘날 시각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다. 아직 여명이 비치기 전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 위를 덮고 있을 시간이다. 이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우리의 처지를 상징한다. 이때 물 위를 걸어오는 이가 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도 나타난 줄 알고 혼비백산한다. 예수님이 안심시키신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It is I)"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다.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 앞에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너희 동족에게 가서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 동족에게 보냈다고 말이다"(출 4:14).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요 4:25~26).

그러므로 친히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나다"라는 표현은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징표이다. 포르부스는 이 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는 모습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의 활짝 핀 세 손가락은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오므린 식지와 약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양면성을 상징한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이때 저돌적인 스타일의 베드로가 앞에 나선다. 유령인줄 알았던 이의 정체가 예수님임을 알고 용기를 낸 것이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난파 직전의 배는 불안하게 요동치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 편협함을 상징한다. 안셀름 그륀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불안하고 편협한 자아(ego)의 상징'이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 무지, 무능, 편협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님에게 간절하게 엎드려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의 용기는 칭찬받을 만하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눈길을 응시하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의 비장한 모습이 돋보인다. 예수님께서 호응하신다.

"오라!"

여기서도 우리를 위해 늘 팔을 활짝 벌리고 즉각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마 11:28). 그러나 용기를 낸 베드로의 담대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서 잠시 눈을 돌려 거센 풍랑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 집중이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을 상징한다면, 거센 풍랑을 향해 한눈파는 모습은 또 다시 자신의 편협한 에고(ego)의 울타리로 회귀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대변한다. 늘 그렇지만 삶의 장구한 항로에서 작은 돛단배에 의지해 거센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우리는 인간적 능력만으로는 이 드높은 파고를 헤치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순간순간 저 무의식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오만함 때문에 한순간에 좌초될 위기를 맞곤 하는 것이다. 변덕스럽지만 인간적이기도 한 베드로는 다소 뻔뻔함을 무릅쓰고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쳐 간구한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마 14:30).

생사의 기로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곁눈질을 해 익사를 자초하는 밉상스러운 베드로에게 주님은 화를 내실 법도 하건만 애처로운 마음으로 조용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며 베드로를 나무라신다. 마치 공생애 기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며 주님의 구주 되심을 목도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면전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요 20:29).

우리는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즉시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마 14:32). 그날 베드로에게, 또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너희는 너희 앞에 거센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게 구조의 손길을 간구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을 때 너희는 내게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또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 것이냐?"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10

"사도행전 29장 써가는 교회 되겠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및 공동체 개강예배

대전 온누리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지난 4일(수) '창립 16주년 기념 및 공동체 개강예배'를 드렸다. 김태경 장로(대전 온누리교회)의 대표기도, 카리스 중창단의 특송,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 담당)의 성경봉독,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의 말씀, 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경 장로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고, 박종길 목사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성령으로 잉태한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지난 4일 대전 온누리교회 16주년 창립기념 및 공동체 개강예배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김상수 목사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류상은 집사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될 것"을 약속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창립했다. 대전, 충남지역에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와 양육, 해외선교와 사회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제1회 르완다 아버지학교 개최

목회자, ECD 학부모 등 40여 명 수료

NGO 더멋진세상과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가 '제1회 르완다 아버지학교'를 개최했다. 르완다 현지 목회자들과 ECD센터(영유아발달센터) 학부모 40여 명이 수료했다. 르완다 무하지러브브릿지교회에서 열린 제1회 르완다 아버지학교는 8월 24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됐다.

정봉진 지부장(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지부)은 "르완다의 상당히 많은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면서 "아버지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학교가 르완다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아카데미 2기 개강

9월 19일부터 매주 목 19시 30분

통일아카데미는 통일에 대한 기독인들의 사명의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진행될 통일을 준비하는데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강좌다. 통일 아카데미 2기는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통일 아카데미 2기에서는 통일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주도홍 교수),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며(윤영관, 전장관, 정상기 전 대사), 남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양창식 전 기조실장)와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 전략(황의서 교수)을 모색한다. 참가비는 8만 원.

문의: 010-9064-6080

'워킹마리아 더 깊은 묵상2' 수강생 모집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킹마리아 더 깊은 묵상2' 수강생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묵상, 일터영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말씀과 기도'는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03호(이하 신관 203호), '말씀과 묵상'은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신관 203호, '일터영성'은 9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신관 203호에서 열린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2-3215-3667

회복사역, '리스타팅' 개최

9월 27일 서빙고 신관 403호

회복사역에서 주최하는 '리스타팅(Restarting)'이 오는 9월 27일(금) 오후 8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3호에서 열린다. 리스타팅은 삶의 성숙과 회복을 돕는 훈련이다. 변화를 위한 두뇌 훈련, 두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술, 고통스러운 감정 잠잠하게 하기, 고착되지 않기 위한 전략들, 건강한 관계, 고통스러운 관계, 독이 되는 관계, 트라우마, 소망 그리고 회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3만 원.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문의: 010-5543-8002

Love Sonata 구마모토 기·도·제·목

- ■9월 8일(주일)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 ■9월 9일(월)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통해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 ■9월 10일(화) 구마모토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 ■9월 11일(수)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자가 한 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 ■9월 12일(목) 출연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 ■9월 13일(금) 봉사자들이 연합되고 섬길 수 있도록
- ■9월 14일(토)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고 새 힘을 얻도록

CGNTV 가을개편 실시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 대거 편성

CGNTV가 가을개편을 한다. 시청자들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한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실천 편)'이 오는 9월 29일부터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일반 성도 가정과 함께 SNS 라이브 방송으로 드리는 가정예배다. 또한 CGNTV KNOCK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되어 큰 인기를 모은 '붓소핸섭'과 유명 예배팀의 찬양이 담긴 '저스트 텐 미닛' 등 짧지만 영향력 있는 콘텐츠도 편성한다.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 건강하게 가꾸도록 돕는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는 매일 아침과 저녁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온누리전도학교 21기 훈련생 모집

9월 22일 개강, 오전 8시 50분 서빙고 홍보관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21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21기는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8시 5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10주 동안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공식 전도지 〈최고의 행복〉 활용법 안내, 반대질문과 접촉점 강의, 현장실습 등이 이어진다. 참가접수는 9월 22일(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거나 주일 통합데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교재비, 현장전도 실습비 제반비용 포함).

문의: 010-3226-4364

일본어예배, 키즈페스타 봉사자 모집

일본어예배부에서 9월 28일 열리는 '키즈페스타' 봉사자를 모집한다. 키즈페스타는 일본어예배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맞춤전도축제다.

키즈페스타 봉사자들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 간식 만들기 등을 도와주면 된다. 일본어를 못해도 상관없다. 9월 17일과 24일 오전 11시 봉사자 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4764-8382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1137082	임미라	강남B	1137117	김민희	서산온누리	1137150	이하진	여호수아	1137059	박영금	강동 말씀
1137083	정영선	수원 남누리	1137118	신희정	하늘	1137151	최은주	여호수아	1137060	남현숙	신용산
1137084	김영국	강동 믿음	1137119	이윤영	하늘	1137152	박보균	여호수아	1137061	낸 다	인천 동누리
1137085	이호정	분당B	1137120	윤민기	동작	1137153	이한오	여호수아	1137062	장철일	강동 말씀
1137094	오선민	부천 희락	1137121	박주성	인천 서누리	1137154	송준화	여호수아	1137063	김영일	강동 말씀
1137095	진상원	서초A	1137122	지동준	양재	1137155	남연경	여호수아	1137064	황수빈	인천 서누리
1137096	김권호	SNS	1137123	오수경	성북	1137156	박종현	Point5	1137065	양현진	강동 말씀
1137097	김온아	SNS	1137124	최형윤	노원	1137157	박주연	부천 희락	1137066	최옥경	송파A
1137098	김상현	SNS	1137125	허성우	평택	1137161	박천종	인천 서누리	1137067	최진하	Bridge33+
1137099	조현승	SNS	1137126	박 현	부천 희락	1137162	김보경	인천 서누리	1137068	김예지	부천 희락
1137100	안솔지	SNS	1137127	장예진	인천 동누리	1137164	조애란	중종로	1137069	최소영	중종로
1137101	구도연	SNS	1137128	서수진	평택	1137165	이준기	성북	1137070	윤현정	대전 남누리
1137102	이상욱	SNS	1137129	차종윤	인천 동누리	1137166	김미경	김포	1137071	장화경	진새골
1137103	김선유	SNS	1137130	양동원	대전 드리머스	1137167	이병임	강남A	1137072	정민영	CH630
1137104	김경현	SNS	1137131	김다솔	인천 동누리	1137047	김성우	허브	1137073	김찬은	CH630
1137106	박시온	SNS	1137132	권기형	강남B	1137048	이명현	허브	1137074	김용무	CH630
1137107	박은혜	SNS	1137133	김미소	여호수아	1137049	한지연	수원 남누리	1137075	김다해	CH630
1137108	이나영	SNS	1137136	김순천	여호수아	1137050	허지현	W	1137076	윤 정	CH630
1137109	이정미	SNS	1137142	남동연	여호수아	1137051	이빛여울	W	1137077	박태산	CH630
1137110	이가영	SNS	1137143	구명옥	여호수아	1137052	김미소	W	1137078	김아드리엘	CH630
1137111	김용환	경기A	1137144	이세영	여호수아	1137053	박영미	송파A	1137079	박규철	CH630
1137112	라혜린	인천 동누리	1137145	구원선	인천 서누리	1137054	최원휘	대전 동누리	1137080	김성민	CH630
1137113	김균형	허브	1137146	정은희	여호수아	1137055	박미서	CH630	1137081	오경애	강남C
1137114	남기완	서초A	1137147	백은혜	여호수아	1137056	김희진	CH630			
1137115	김현서	하늘	1137148	신예림	양재	1137057	장선민	CH630			
1137116	정종희	하늘	1137149	우정윤	서산온누리	1137058	송바울	한터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11

▌강남D공동체 장례사역팀 간증

참 믿음의 유산

/ 송현진 성도(강남D공동체)

"아빠는 좀 전에 평안히 가셨어요.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하게 가셨어요."

위급하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러 순천으로 내려간 한 자매가 보낸 메시지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용기 내어 그 자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막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낸 막내딸은 매우 담담하고 침착하게 임종과정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자 온 가족이 고인의 곁에 둘러 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고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한다. 과연 이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황상용 목사님 소천 5일 전 '감사의 밥상' 이라는 그의 삶 마지막 축제가 열렸다.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을 부르며 서로를 축복했다. 황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셨다. 감사의 밥상은 Well-Dying,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품위를 자아내는 자리였다.

강남D공동체 장례사역팀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빈소를 방문했다. 빈소에는 애도의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슬프게 우는 이는 없었다. 장례 일정이 모두 끝나고 6일 만에 감사의 밥상II '숨과 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가 열렸다. 이번에는 미망인이 된 사모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감사의 밥상 두 번째 모임에서는 임종 과정이 화제가 되었다. 황 목사님은 거친 숨을 내쉬며 "하나님 고맙습니다"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셨고 한다. 거친 호흡이 잠잠해지자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없는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며 남편의 마지막 길에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유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이 '참 믿음의 유산' 을 물려받은 시간이었다. 평소 고인과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셨으니 우리 모두 박수쳐주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가족 모두 그렇게 박수치며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짜 호스피스의 장이 열린 것이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죽음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故 황상용 목사님을 추모하며 아름다운 천국 여행을 감히 함께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날마다 111전도〉를 읽고

전도는 필수이자 의무!

/ 정기숙 집사(시드니 온누리교회)

온누리전도학교 필독서인 〈날마다 111전도〉를 처음 받았을 때 '111' 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었다. '111' 은 '하루(1)에 한 명(1) 이상에게 유일하신(1) 예수님을 전하자!' 는 의미다. 나는 이 책의 각 페이지마다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으며 열심히 읽었다. 〈날마다 111전도〉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 있었다.

〈날마다 111전도〉는 전도교과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나 쉽게 읽고,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당연한 의무다.

이 책은 부모와 자식관계를 설명하는 예화로 하나님과 사람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읽는 내내 집 나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 이 책만 정독해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스토리텔링으로 전할 수 있다. 내가 〈날마다 111전도〉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본 내용은 '전도 중에 만나는 반대 질문들' 이었다. 그동안 전도할 때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츠려 들곤 했다. 이 책은 그런 나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전도에 대한 성경말씀과 지혜가 총집결되어 있어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 이제는 잘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려 전도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날마다 111전도〉에서 배운대로 두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중 한 자매는 온누리교회에서 새가족교육을 받고 있고, 그 자매의 두 아이들까지 예배에 나오고 있다. 그 자매와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과 세례 받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한 자매는 온누리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다. 이 책 읽으면서 그 자매가 생각났다. 먼 곳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어 소홀했던 점과 책임을 다해 섬기지 못한 부분이 떠올랐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앞으로도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할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 워십콰이어 단원 간증

우리 삶의 목적 '찬양'

/ 하영민 형제(온누리 워십콰이어)

나는 평소 찬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훌륭한 노래실력도, 찬양사역자로 섬긴 경험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올해 초부터 온누리 워십콰이어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워십콰이어에서 찬양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온누리 워십콰이어에서 활동하면서 내 안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담뿍 누리고 있다. 특히 찬양으로 봉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사야 말씀에도 우리의 창조 목적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사 43:21).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구원자, 주님, 그리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찬양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하다. '혹여 나 나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나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한다. 매 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한다. 단상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찬양은 물론이고 나의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 맘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온누리 워십콰이어 대원 모집
오디션: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서빙고 본관 지하 1층 성가대실
문의: 010-4531-7153

▌서빙고 세례사역팀 스태프 간증

세례사역은 감동이다

/ 배기선 집사(서빙고 세례사역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 3:16~17).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다. 이 얼마나 황홀한 순간인가.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으며 이와 같은 영광을 꿈꾸고 바란다.

세례는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며 천국 백성으로 서약하는 자리다.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고백한다. 세례예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세례예식을 돕는 세례사역은 한 영혼이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사역이다.

세례교육과 문답 시간 중에 세례자 간증이 있다. 세례 받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이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첫사랑을 고백한다. 그들의 애틋한 고백을 듣고 있으면 언제나 잔잔한 감동이 가슴 깊이 밀려온다.

내가 세례사역을 섬긴지도 20년이 지났다. 한 사역을 이토록 오래 섬기기는 쉽지 않다. 동료 세례위원들도 모두 10년 이상 오랜 시간을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세례위원으로 섬기다보면 믿음의 동역자로서 오랜 기간을 함께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세례위원 몇 분이 장로 피택을 받으시고 다른 사역으로 이동하게 됐다. 또 지방 근무로 더 이상 세례사역팀을 섬길 수 없는 분들도 계셨다. 이런 상황에 놓이다보니 세례사역팀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급하게 찾고 있다. 세례사역은 그 어떤 사역보다 성령님의 역사와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세례사역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1층 예배지원실 세례담당 간사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세례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바란다.

문의: 정빛나 간사(02-3215-3263)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12

장로칼럼

믿음의 계승 프로젝트!

육동건 장로
(일대일사역팀)

지난 주 두란노서원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017년 2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출간한지 2년 6개월 만에 판매부수 1만부를 돌파했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1만부 이상 팔렸다는 것은(일대일 제자양육할 때 교재가 두 권 필요하므로) 숫자상 5천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일대일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기 자녀에 대한 말씀양육권, 신앙전수권을 더 이상 교회와 주일학교에 맡겨두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 깨어서 능동적으로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데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없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판 교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선교사님들로부터 〈영문판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정작 선교지에서 자신의 자녀와 또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도구가 마땅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두란노서원과 협력해서 〈영문판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제작에 들어갔고, 마침내 지난 7월 24일 〈영문판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출간되었다. 아름다운 번역과 감수를 위해 수고해주신 영어예배팀의 P목사님과 K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영문판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교재가 선교지와 해외 비전교회의 한국인 2세들, 한국 내 영어권 아이들, 나아가 전 세계 어린이의 신앙교육과 믿음의 계승에 탁월한 도구로 쓰임 받기 소망한다.

故 하용조 목사님은 가정을 정의할 때 '처절하게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반으로 세워진 믿음 안에서 양육된 자녀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열린 창을 통해 자신이 바라본 대로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이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영적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소금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구별된 증표들이 되어 세상 속에 참된 빛과 정결한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주어진 각 영역에서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일대일이라는 작은 씨앗이 이 땅 위에 뿌려졌다. 이제 물을 주며 지속적으로 가꾸는 손길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시어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를 뛰어 넘는 믿음의 계승 프로젝트가 완성되어가는 비전을 꿈꾼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꿈을 공유하며, 함께 꿈꾸는 자들을 통로로 새 창조에 대한 원대한 꿈을 현실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가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의 비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권사칼럼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

성명자 권사
(이촌공동체)

요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자녀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새로운 영적부흥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나는 6.25전쟁 휴전협정을 하던 시대에 태어나 혼돈과 격동의 시대를 산 세대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미국에서 원조 받은 옥수수빵이 지급되었다. 식량이 부족해서 잡곡밥을 싸오라고 도시락 검사를 하던 시대였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는 최류탄 연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는 시대였다.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붙잡았던 유일한 소망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곳곳에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의 제단이 있었다. 1974년 여의도에서는 100만 성도가 모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슬로건 아래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전심으로 기도했다.

며칠 전 마리아행전 스태프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다녀왔다. 그곳에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기둥이 눈에 들어왔다. 그 돌기둥에 쓰인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문구는 일제치하에 주권을 빼앗기고 소망이 없던 시대를 향하여 기도의 사람 김용기 장로님이 외친 담대한 선포였다. 조선이 멸망당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는 암흑과 같은 그 시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셨다.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평양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 당시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암흑의 시대를 돌파하게 하셨다.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염려에서 확신이 되기를 바란다.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말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으로부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우리를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을 통하여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우리에게 하루 세끼 육체적 양식이 필요하듯 하루 세 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마리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에 새롭게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리아행전 1.2.3 기도운동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한다!

신앙에세이

신앙의 정공(正攻)법

김재승 전도사
(파워웨이브)

나는 어린 시절 두려움이 많은 아이였다. 세상은 나를 공격하려는 무서운 형들이 우글대는 곳이라는 혼자만의 생각 때문에 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계곡물에 깊게 빠진 경험은 물놀이를 두렵게 만들기도 했다. 자전거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넘어질 것이 두려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였다. 매순간 나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신앙인의 삶은 매순간이 싸움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 나를 둘러싼 삶의 문제들과의 싸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싸움 등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직면하게 된다.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없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두려움이 내 안에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결과 역시 천차만별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두려움을 직면했던 상황들이 나온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공(正攻)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 이야기, 가나안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내려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이야기, 사울 왕의 끈질긴 모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처단하지 않고 살려주었던 다윗 이야기 등은 신앙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들이다.

헨리 나우웬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많다. 우리 앞에 당한 가장 큰 도전은 상실의 현실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무엇인가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힘과 권한, 내가 가진 경제적인 부유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인간이 두려움 앞에서 신앙의 정공(正攻)법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답을, 눈에 보이는 방법을, 눈에 보이는 성공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공(正攻)법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칼을 들지 않고 두 손을 드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여론이 가나안과 전투를 하면 질 것이라는 의견으로 기울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 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단칼에 처단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신앙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신뢰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신앙의 정공(正攻)법은 기도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훈련이 쌓여있을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이 나를 뒤흔드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공(正攻)법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다.

20190908-1261□-□□_□□□□□ 19. 9. 6. □□ 7:15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회개(2) 자기 십자가를 지라

때로는 순차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참여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자아가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복음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25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약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는 못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십자가의 못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못처럼 찌르는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못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못입니다.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못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옳아 보여도 모두를 위해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찌르는 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회개를 평생 경험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배워야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전 생애에 걸쳐서 참된 회개를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김명환	정태선
김성준	김남철
김영성	김준홍
박희열	강석환
서영민	김석영
이지원	김은주
한기원	김태오
■ 강서	
김도형	곽희준
김지연	주영희
안선경	이선경
윤상원	김준완
장선자	오연수
최수민	정은경
■ 강촌	
노태승	김다일
도상목	박미룡
이성주	안은영
이호신	조시연
조현규	정수봉
차유미	오수연
■ 고양은평	
김상민	최형준
김수현	강성희
김점열	안길수
김정인	함혜정
김지영	한은희
김한주	김정신
문혜영	양재경
전진성	김승동
■ 관악금천	
김래경	원유미
노권일	김종만
허장현	이초섭
■ 김포	
길태훈	진승관
문희자	박길자
박완규	임명본
염미숙	이은지
천민영	최지연
■ 동대문중랑	
김선옥	김현정
김한나	엄미라
김화평	장선규
라성희	박종선
박종우	김정민
이주희	박은진
장윤수	이영환
정광진	이성호
최정희	심윤경
■ 동작	
김상훈	이응수
김 선	이순금
김윤덕	박명숙
김태현	김재만
박용구	박명근
서용주	이춘옥
성주영	김세원
윤병준	전기훈
정선희	조성애
■ 마포	
강수경	김보라
박현주	안혜성
성윤창	김동환
음소라	서유경
이수복	박경아
이은아	신윤경
조철호	장장용
하영민	홍광식
■ 북누리	
김순천	김계숙
손순태	김계숙
유정렬	맹창수
황국향	김성희
■ 서대문	
권세웅	김현주
김대일	윤수원
김동원	조성호
박주형	강영재
송정숙	박동윤
이선희	박미실
황경배	편흥열
황다경	김성애
■ 서빙고	
김민규	이덕호
김형준	임삼빈
■ 서산 온누리	
강현하	김용운
김은혜	장옥이
김응수	전성일
송인애	함은혜
■ 성동광진	
김정후	박은희
조용구	김이준
최미애	서경주
최서연	박미희
■ 성북	
권유현	박민규
김연수	윤수원
박 경	김춘숙
박하빈	박은혜
안경자	소성숙
이상백	최윤기
정경미	장수정
정경희	박미경
■ 신용산	
김형태	이철휘
박철용	한대수
박혜진	유혜민
손정성	차상윤
이지혜	정종희
이창현A	이수관
한규일	라팔모
한혜진	이동미
허운석	이수관
■ 양천	
곽금순	이경옥
김민지	우정완
김윤희	이화숙
노승인	박노민
정영성	고 용
■ 여의도	
홍두표	김수역
■ 영등포구로	
김영숙	강문희
서 혁	박재수
이승훈	류지만
이정아	문경민
정성호	도전복
홍정길	김항철
■ 온누리미션	
김혜성	윤용국
■ 용산	
김종삼	김이성
김혜영	김근영
오정택	지상목
유지연	조매자
이상엽	김태운
장인숙	강경열
정정숙	임정수
■ 이수	
신미정	손현이
안영희	한영준
유재관	최광천
최경선	김경선
하인희	현옥선
■ 이촌	
김미영	정경옥
성낙연	송영자
소준영	우경선
위해님	이혜양
■ 일산	
김소현	최양희
장 육	곽병철
장하은	유금지
최정녀	이진경
■ 중국어예배 JIN HAPENG	김성철
■ 중종로	
계영수	박병익
박진홍	홍진섭
유재연	이희영
윤태석	안승립
이은경	김경희
이재형	정문규
진철규	남관우
차진주	강은주
최강미	김문경
■ 한강	
김세연	정지민
김중헌	안길수
서효정	박미선
안영화	황옥화
유정임	이경자
이지윤	유금지
최준석	김승규
■ 공동체없음	
강지원	이경숙
류상권	홍해남
오수린	김정순
우성민	이학필
윤영빈	홍승우
이미혜	김혜숙
채은희	김승미
최선경	홍유란
최지은	정지연
■ OCC	
구재명	한충희
이가영	이소영
■ OEM Steve Chun	이원장
■ S브릿지	
강연주	김운숙
권우준	김영환
김영미	박명숙
서윤재	김승연
안진경	이명순
오거늘	유영석
오승준	정태선
이정림	송현정
이혜승	여의주
조정래	박남식
최보용	유영석
최재학	김현주
함정미	전지윤
홍효순	이소영
양재	
■ 강남A	
박영순	권선정
손수현	이명신
신미진	신재금
이지연	조명희
■ 강남B	
김윤혜	임혜진
여재익	최종순
이새벽	황소엽
이종원	주제욱
이준형	이두열
전 율	김현정
최혜진	안영남
홍미경	최윤정
홍은경	정미영
■ 강남C	
권은경	신을수
김 경	홍성임
최은정	홍성희
■ 강남D	
강나영	이승희
김세영	황인경
류혜진	이숙경
■ 강남E	
김은희	최명숙
문소리	이백권
박성연	이연실
윤정윤	김정순
함영훈	김영광
■ 경기A	
박현묵	서병재
백지숙	조경희
이은경	원현숙
이한규	서광열
임진택	허형석
채수형	김창수
■ 도곡	
김은영	남병은
배종태	송세호
변정수	이상준
양유란	이승혜
유신아	유지현
유일기	윤진혁
최돈화	이일순
■ 분당A	
정예주	김재인
■ 분당B	
김강민	신현재
김승현	김종성
김용형	손현웅
김정희	최은경
라민선	김진숙
박지은	전은숙
안선미	박혜정
윤관영	윤석남
이주용	박용준
조옥임	김임순
■ 서초A	
안선애	김경아
오병우	최재인
임해창	이성복
장영자	정중경
■ 서초B	
권선희	한나영
권영세	정운섭
박성희	윤영철
이준형	김상철
정희선	한송희
■ 서초C	
권소영	임한나
김윤정	이원선
김은영	송영림
김희선	김재열
서현식	강민구
성유진	김성현
이은주	김정순
정은혜	손현진
정혜욱	정정숙
한승희	백은희
■ 서초D	
김훈회	김호중
이미정	조선녀
이혜민	최은영
조혜미	김희정
■ 송파A	
김서주	강윤경
김은정	엄미라
김종엽	정지석
김주봉	김용찬
박일수	박영숙
신선비	강은송
윤길자	우미영
이남정	장혜경
이승준	석효수
이정선	최종하
이지은	이현주
조슬기	강은하
허나연	김소희
황은경	김명화
■ 송파B	
김용순	박승병
김혜나	이기용
이상림	이현숙
임수경	박선희
최성숙	김경숙
■ 양재	
김미정	이춘자
김진선	주은숙
박영민	강성석
배은영	강현옥
오송이	신창순
윤태호	김용복
이현미	양용옥
임동윤	이경섭
임수진	우주연
장준옥	신봉섭
정경옥	백윤옥
정은하	최혜진
채혜선 코타케리츠코	
허귀애	민경애
허인경	박인자
황우주	박강주
■ 푸른누리	
김명수	권영민
김정하	임지영
손병희	이태영
■ 하나	
박승미	서혜영
함유정	박은희
■ 공동체 없음	
이민정	이지영
■ Bridge33+	
권영국	이신범
권효진B	현우정
김상미	김수완
김수현	이혜화
김영찬	김태건
류지현	황수정
박준효	예정우
서효정	이도연
선여원	성근정
성우경	한주미
이가현	김지연
이선희	하지혜
이영환	김현진
전용기	류제경
조주연	이정현
■ Harmony	
오지영	김현미
■ Point5	
김양희	박은경
이재현	최 훈
이태웅	김창원
한두리	김 준
대학청년	
■ 갈렙	
윤소은	박광선
■ 길	
금혜승	이문희
김요한	조성훈
박현진	엄미라
주현경	김지희
■ 여호수아	
강동요	김찬우
강물결	김득희
권다영	윤지영
김미지	김미용
김보연	서은아
김설이	백경은
김소영	노정은
김수연	김세자
김예지	한경원
김지현	원경혜
김희주	박종미
문희준	조승용
박진영	이경숙
변정희	이금자
서미나	김유영
서빛나	김준영
손모아	최지윤
심효빈	이수훈
안준규	윤상엽
양회정	이승근
오정민	전소정
우수진	박선향
위성규	이 준
유효지	서정원
윤나리	김경원
윤수경	김담희
윤지현	이현숙
이규원	장창근
이은지	주미정
이재현	김을희
이준성	성시철
이찬규	이승은
이혜원	강지숙
정윤지	이주은
정재민	김찬호
정지현	장우린
조상미	윤현정
최민경	장서영
최진영	김혜영
한지수	허정아
홍석호	양웅대
황다솜	장 진
■ 요셉	
박은희	박혜경
송귀석	최재영
오 탄	김기선
장하영	이현철
정민혜	김인기
황시아	김미숙
■ 하늘	
김상엽	유승빈
노정래	김영환
박소연	유혜식
박채연	박영정
변예담	이상기
오어진	김민혁
오하연	박나영
윤수빈	강정임
이예은	이주현
정현우	김승우
■ 허브	
강유진	이인숙
권영수	이효일
김경민	도재현
김 은	표진옥
김재현	김재언
도창현	윤호일
박은향	박영미
박주희	심하늘
박준영	정민욱
신민욱	홍필선
신의토	정원석
신혜주	김단비
이민규	한명석
이은호	이유상
이지현	김서경
이필영	윤성주
정다운	김이경
최온유	전경은
홍채령	김바론
■ CH630	
편인영	김유라
■ J4U	
권오서	곽금봉
김국형	백종한
김미정	손은희
김유나	정정분
김진욱	허 경
김효선	정혜영
박보래	이효영
박성찬	박정선
박주혜	지선정
배지현	정용우
유지명	김지민
윤성필	이병국
이영호	김종근
임예지나	이수연
장정원	박은경
조주희	조성아
최수임	남유선
한민희	배명희
허효주	윤수인
홍성훈	김정수
■ Pole2	
공지한	김현식
■ SNS	
김건형	정영택
김경진	오용순
김지원	강종도
김현주	조은영
김혜화	이현아
노해송	이용숙
문민정	오은숙
박동윤	이해진
박미소	유수현
박서진	손정연
박용규	곽상규
박재형	양재경
백성욱	유승윤
서지현	구순림
서 희	한경희
소지안	장은진
손사라	엄경숙
송진아	박선영
오지선	박윤자
이민정	오민정
이학재	손진영
임수경	김민숙
장현미	정현숙
정예은	박윤영
지희진	윤성혜
최아름	김은주
편상준	박익수
■ W	
공지혜	강혜님
김민정	박미운
남현지	송기현
윤혜임	정명현
이송원	김용덕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9월 15일(주일) 3부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수료예배대상자: 6월 1일~ 8월 31일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김미란	김정수	■ 김관수 목사반	천형성
■ 김종민 목사반	김성민	남희영	고귀순	최승규
권혜영	김인숙	신광필	김혜란	한규석
김태현	김정옥	신동필	남정이	■ 김태용 목사반
문성균	김진순	안성자	박주운	마영휘
박현주	김호정	이명진	박지선	■ 박동현 장로반
박효정	노남섭	이채용	안정심	권영빈
백신원	문 찬	정미향	유중재	김태문
윤영근	박규민	■ 이찬우 목사반	이요한	문예인
이상림	박재용	고혜선	이한상	박동욱
이정화	송기국	김용곤	임호순	박영희
이해선	송영자	김지현	정순일	서지연
임현정	신태식	박소연	정은희	전기병
장영배	오두섭	박은경	조복순	전애리
정순화	왕순영	빙지영	조주형	■ 윤경숙 목사반
■ 김효구 장로반	유정수	선혜린	홍승교	강창희
최규영	이미연	이진희	황성우	김소영
■ 박구병 장로반	이종필	조은숙	■ 김도균 목사반	명현숙
신후남	이지나	천세민	권수정	문상권
■ 박철웅 목사반	이창숙	허신희	길성환	연 일
박인숙	이혜숙	호정은	김경아	장영은
■ 신동식 목사반	이효숙	홍현정	김수아	홍승연
고경희	장혜경	황혜영	남기석	■ 이기진 목사반
	정한수	■ 최승구 목사반	석현수	이윤영
	조성래	구병삼	유은경	
	최민숙	윤주희	유은혜	
	최희규	**양재**	이승아	
	■ 이상기 장로반		이승한	
	강지선		이윤정	
	구귀숙			
	김성수			

1261호 20190908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9. 6. 오후 6:20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샬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033-732-0044)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순수매장
잔여수량(기):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10-3927-0705)

월요어노인팅집회 방송 PD모집
섬김: 매주 월 오후 5시 30분~10시 전후
역할: 생방송 송출, 음향 관리
인원: 모집 1명(소정의 사례비 지급예정)
문의: 010-9372-2909

세라핌 합창단 단원 모집
오디션: 매 주일 2시 30분
(자유곡 1곡 악보지참)
대상: 초등 1학년~중학교 3학년
장소: 서빙고 Acts29(신관카페 내)
문의: 010-5958-5583

김포 온누리M센터 한국어 교사 모집
장소: 김포 온누리M센터
일시: 10월 16일부터 매주 수 10시
문의: 031-8048-9446

동빙고 근린공원 조경 부문입찰
면적: 26,849㎡(8,122평)
마감: 1차 서류(9월 19일 15:00까지)
과정: 1차 서류심사, 2차 제안서심사
문의: 최익준 부장(02-3215-3143)
*세부 사항은 입찰정보 사이트 참조

양 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양재 캠퍼스 간사모집
모집: 전임 1명, 계약직 1명
제출: 9월 26일까지(haroo@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문의: 02-570-7447

바이올라 대학교 입학설명회
대상: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
일시: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
문의: Dr. 김폴린(010-4619-4533)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믿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9/1,8,15, 22, 29: 연세대학교 종합관(송도동 162-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1261호 20190908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9. 6. 오후 6:20 페이지 2

온누리교회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韓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용갑 길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섭 김용민
김윤식 김진아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안광국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경헌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기락 김재승 안사무엘 이우람
최대흥 최성규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곽상학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네트라 넬슨 제닝스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바랏 라살리
박씨마 서수민 싱루아마납 안희진
이진이 유승덕 유진아 윤치연
임선아 제인량 최일관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강성효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경민 김두일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앤드류 김은하
김은혜 김유민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지환
김진성 김진아 김주영 김종균
김충성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태희 김한국 김형중 김형태
나지혜 노태규 민희준 민혜영
박근명 박미애 박신광 박승홍
박영규 박은빛 박이호 박지수
박현식 방세미 빌 케 배강석
배명지 백운진 서영철 쇼바 수누와르
송동주 송선애 송우항 신대종
신동욱 신하선 신현민 신현아
양주영 양진범 여지휘 연공주
오국헌 오명도 오영민 오준현
오현석 우승민 윤경선 윤상복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효정 이루주 이민아 이민희
이명진 이보라 이상관 이상은
이신임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수호 이엘렌 이용민 이원준
이은정 이진기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장광석 장미숙 장새힘
장윤진 장재원 전소리 정성진
정에스더 정연상 정영광 조준기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영빈 최정현
최종현 최휘준 하성희 한영철
허루슬란 현신원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종인
안태환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섭 윤영오 윤지준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윤채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종대 한형식
합선호 허형석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연상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 완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학철
신현승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병훈 유의준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 철 이태열
이태환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덕종 한백진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호종일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박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혁재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현상준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서 원 석지혜 송효빈
신은혜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염주희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후명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은
이예진 이혜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황보승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완 박만규 박신웅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 이 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도일 김동은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영
이은택 이한규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 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상헌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헌식 서인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정보
김좌겸 김준걸 김진용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8/29(목) 강촌 유혁 성도 부친상 고 유영춘
8/30(금) 서빙고 이인숙 권사 부군상 고 김병규
8/30(금) 분당B 임수길 성도 부친상 고 임영문
8/31(토) 서초A 이경한 집사 모친상 고 김숙연
8/31(토) 이수 이명진 집사 부친상 고 이용열
8/31(토) 성북 이주리 성도 부친상 고 이철수
9/1(주일) 광명 신유(신정임) 집사 부친상 고 신칠성
9/3(화) 용산 조성란 집사 모친상, 이광열 집사 빙모상 고 김순임
9/3(화) 서초B 최승범 성도 부친상 고 최태수
9/4(수) 영등포구로 백은식 성도 모친상, 한명순 성도 시모상 고 홍음전
9/5(목) 강남C 강문기 성도 빙부상 고 이인영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권찬송,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읽기 등 봉사자 모집
문의: 이진욱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자 모집
내용: 11:00~14:00 / 점심식사 제공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70-7163-24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엽 팀장(02-703-601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2020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안내
일시: 9월20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1층 한동홀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능(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
예약: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준비: 예약금 50만원 및 교인확인증명서
* 예비 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교인확인증명서' 지참
선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점 예약
문의: 서빙고(02-3215-3179), 양재(02-570-7505)

2019창조신앙교육축제 패밀리콘퍼런스
일시: 9월 28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선한목자교회(성남 복정동)
대상: 어린이(초4~6년), 청소년, 학부모, 일반인
문의: 02-419-6465

1261호 20190908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9. 6. 오후 6:20 페이지 3

CGNTV 추석특집 프로그램

풍성한 은혜가 있는 CGNTV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싱글벙글 : 홀로된 엄마들의 빛나는 오늘>

내레이션
배우 신애라

사별의 아픔을 딛고 주어진 삶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싱글맘들의 이야기
9월 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 [재방송] 9월 14일(토) 오후 9시 50분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최연소 CCM 가수 채민강 양과
11살 드러머 김신혁 군의 가족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

9월 8일, 15일(주일)
오후 5시 40분 방송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사모들의 전성시대
'나는 사모다' 코너에 출연했던
사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들려주는
사역이야기

9월 9일(월)
오전 11시 20분 방송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하얀이 나누는 감사의 고백

9월 14일(토)
오후 8시 30분 방송

[추석 특집 영화] 고고송

더 많이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영작'
주연 배우 윤은혜, 지일주

9월 13일(금) 오후 10시 30분,
9월 14일(토) 오후 2시 30분 방송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